


공동체 소식



부활 제2주일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가정**
- + **차호섭 요셉, 차선운 마리아 가정**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행사 안내

- 기념만찬: 5.11(수) 저녁 6:30, 신청마감-4.25(월)까지, Double Tree Hotel,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714)895-3619.
- 기념미사: 5.12(목) 저녁 7:00, 뉴욕대교구 주교좌 성당.
- 매 미사 전에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기도를 바칩니다.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설립 50주년 기념 한국 성지순례

- 내용: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전례꽃'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봉헌하신 분: 김화년, 이영민, 문문주 감춘희, 임창주, 김말자, 김인자, 정지현.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2 <그리스도의 새 생명> 중-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4	211	174	129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다음주일	정채린 소피아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감영진 라파엘	감춘희 라파엘라
차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정연숙, 장남순, 박동희, 박혜정
차주	조경희, 김계숙, 김진미, 김소라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7	103명	594불	900불
김대연, 김정훈, 박재천, 김진미, 정석원, 김태중 (총 6세대) -특별헌금:180불, -성목요일:229불, -성금요일:188불, -부활성야:414불.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4월 3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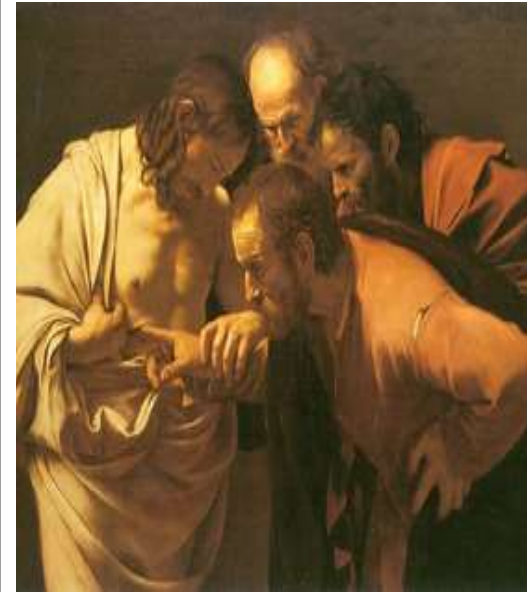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며,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어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복음서를 읽으며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합시다.

성화해설

성토마스의 의심 (카라바쵸, 1601~1602, Oil on canvas)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또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하시는 말씀에 토마스 사도는 한마디도 못하고 꿈쩍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고나서 울바로 주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토마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칩니다.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12-16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화 답 송 :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 2 독 서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9-11, 12-13, 17-19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쉐 마

나의 이웃에게 자비의 얼굴을



요한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는 부활한 몸이 현재의 이 몸과 차원이 다른 몸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 부활과도 직결되는데 부활 때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면 우리는 라자로처럼 다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병이 있는 분들은 지병을 지닌 상태로,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은 분은 나이 든 상태로, 어릴 때 죽음을 맞은 이는 어린이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십자가를 두 번 지게 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현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었음을 증언합니다.

물론, 부활한 몸이 지금과 차원이 다른 몸이라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부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 봅니다. 여기서 부활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주간 첫날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마다 모여 왔습니다. 물론 승천 사건이 있는 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승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거나 만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쪼개어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루카 복음서의 엠마오 이야기는 이런 부활 체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쪼개어진 빵의 형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으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며, 받아 모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하지만 가끔 인간적 생각으로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알기라도 하시는 듯 토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찌 보면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토마스처럼 이야기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을 직접 보고서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제자들처럼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그 믿음은 부활을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진정 더 행복한 이들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쪼개어지는 빵의 형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꺼이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마스 사도처럼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신앙의 부부,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퀼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독수리라는 뜻의 이름인 아퀼라로 유대인이었고 부인 프리스킬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아퀼라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코린토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열심한 신앙과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들 부부를 찾아갔는데 다행히 부부와 생업이 같아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8,1-3

당시 코린토는 지중해 연안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며 교류가 활발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아퀼라 부부는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배척하자 바오로는 옷의 먼지를 털며 무엇이냐고 말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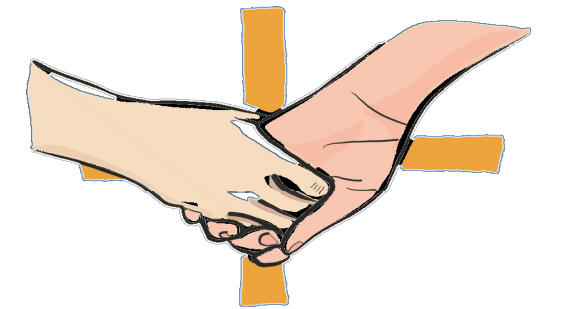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8,4-6

사도 바오로는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그 집은 마침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

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나 머무르며 복음을 선포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8,7-11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귀한 기술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이 선교비를 벌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선교에 실패해 실망한 바오로는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오로를 미워하여 그를 잡으려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를 집에서 돌본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심전력으로 바오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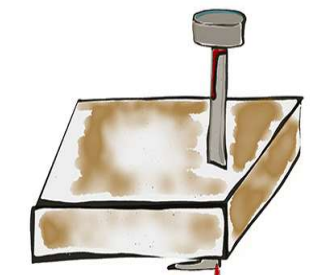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의심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토마스는 의심하지 않았다.
토마스는 의심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떠나보낸 그 님이길
내게 단 한 번 기회가 더 있다면
미안하다 말하고 싶은 그 님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립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 임의준 신부